

광주·전남 '나홀로 가구' 증가...2052년엔 40% 넘겨

호남통계청, 1인 가구 변화상

광주 36.5%...29세 이하 가장 많아 전남 60세 이상·남성 증가세 뚜렷 주거, 단독주택 '줄고' 아파트 '늘어' '생활비 직접 마련...주택안정 필요'

광주·전남지역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나홀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52년에는 광주와 전남 모두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1인 가구가 될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중도 20%p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지역 1인 가구 비중은 3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높았다. 지난 2015년(28.8%)과 비교하면 8년 새 7.7%p 증가했다. 전남(37.1%)은 전국에서 8번째로 비중이 높았으며, 2015년 대비 6.7%p 늘었다.

성별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여성이, 전남에서는 남성이 1인 가구 증가를 주도했

다. 광주의 여성 1인 가구 비중은 50.3%로, 2015년 대비 1.2%p 늘었다. 전남은 남성 비중이 48.1%로 8년 새 4.0%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광주는 29세 이하의 비중이 20.4%로 가장 많았고 30~39세(17.1%), 70세 이상(1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29세 이하와 30~39세의 비중은 2015년과 비교해 각각 0.8%p·3.8%p 감소한 반면 70세 이상의 비중은 3.3%p 늘었다. 전남은 70세 이상(32.4%), 60~69세 이상(20.1%) 등 60세 이상 노년층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59세(16.7%), 40~49세(10.5%)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은 광주에서는 동구(43.6%)가, 전남은 곡성군(44.9%)이 가장 많았다. 2015년과 비교하면 광주는 서구(8.9%p), 전남은 목포시(9.2%p)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52년에는 광주(42.5%)와 전남(42.8%) 모두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나홀로 가구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 광주의 경우 29세 이하는 13.0%p 감소, 70세 이상은 21.1%p 증가하고 전남은 29세 이하는 7.3%p 감소, 70세 이상은 20.5%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거유형은 단독주택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파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기준 광주지역 1인 가구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2015년 대비 11.4%p 감소했고 아파트 거주 비중은 10.0%p 증가했다. 전남의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9.9%p 줄었고 아파트 거주 비중은 8.7%p 늘었다.

주택 소유 측면에서는 광주(20.0%)와 전남(25.3%) 모두 1인 가구 주택 소유 비중이 전국 평균(19.7%)보다 높았다. 아파트 소유 비중도 전남(20.7%), 광주(18.8%) 모두 전국 평균(17.2%)을 웃돌았다.

일하는 나홀로 가구도 증가했다. 광주 지역 1인 가구 취업 비중은 61.9%로, 2015년보다 3.1%p 증가했다. 다만 전국 평균(63.3%)보다는 낮았다. 전남의 취업한 1인 가구 비중은 66.5%로, 8년 새

4.2%p 늘었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로는 '배우자 사망'이 꼽혔다.

광주는 36.2%가 '배우자 사망'을 주요 이유로 답했으며, '학업이나 직장(20.8%)'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배우자 사망(14.3%p)'은 증가했으나 '이혼(-2.8%p)'은 감소했다. 전남은 45.5%가 '배우자 사망'을 꼽았으며, '혼자 살고 싶어서(3.7%p)'는 증가했으나 '배우자 사망(-4.9%p)' 감소했다.

1인 가구가 느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는 개선됐다.

2024년 기준 광주 1인 가구가 건강평가에 대해 '좋음'이라고 답한 비중은 50.3%로, 2020년과 비교해 '좋음'은 12.8%p 증가했고 '나쁨'은 15.2%p 감소했다. 전남은 '좋음' 비중이 41.5%로, 2020년 대비 '좋음'이 6.0%p 늘었고 '나쁨'이 8.9%p 줄었다.

1인 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된 방법은 본인, 공적 지원(기초생활급여 등), 자녀 지원 등 순이었다.

2023년 기준 광주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69.0%), 공적 지원(16.5%), 자녀 지원(7.8%) 등 순이었으며, 2020년 대비 공적 지원(5.1%p)은 증가했으나 본인 마련(-8.2%p)은 감소했다. 전남은 본인(69.7%), 공적지원(22.8%), 자녀 지원(6.9%) 등으로 본인 마련(15.5%p)은 증가했으나 공적 지원(-11.1%p)은 감소했다.

가장 부담되는 지출비 항목으로 광주는 식비(32.3%), 의료비(31.0%), 주거비(23.0%) 등을 선택했으며 전남도 식비(47.1%) 의료비(19.8%), 주거비(18.5%) 등 순으로 동일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광주(32.4%)와 전남(37.0%) 모두 주택안정 지원 정책(1인 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을 꼽았다. 2020년과 비교하면 광주는 돌봄서비스 지원(6.8%p)은 증가, 주택안정 지원(-18.5%p)은 감소했고 전남은 주택안정 지원(4.1%p)은 증가, 가사서비스 지원(-4.4%p)은 감소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여름 인기템 '밀짚모자' 선택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휴가 필수 아이템인 밀짚모자를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본관 3층에 위치한 '헬렌카민스키'는 모자 전문 브랜드로, 해변 등 휴가지에서의 자외선 차단 기능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춰 인기가 높다. 헬렌카민스키는 열대식물인 야자 잎으로 뽑은 섬유인 라피아를 사용해 견고하지만 가벼운 소재로 시원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공예로 만들어져 장인 한 명이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3일이 소요된다. 대표상품은 헬렌카민스키의 베스트 셀러인 '비앙카12'로 32만원이며, 올해 출시된 신제품은 챙 기장이 10cm인 '에린'으로 35만원이다. 색상은 카멜, 네추럴, 블랙, 그레이로 만날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DH오토아이, 차세대 AI 자율주행 기술 특허 등록

글로벌 기업에 제품 공급 추진

자동차 전장 전문기업 DH오토웨어는 100% 자회사 DH오토아이가 AI 기반 차세대 어라운드 뷰시스템(AVM 시스템)의 특허등록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AVM 시스템은 AI 기술이 적용된 차량 측면충돌 경고시스템으로 차량 및 보행자 등 도로 내 충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 경고해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 특허등록으로 DH오토아이는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품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자율

주행 기술의 안전성 향상이 중요해진 만큼 전장 시장으로부터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DH오토아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에서 다수의 자동차 전장 기업들과 공동으로 국책과제에 참여해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구현을 진행 중이다.

DH오토아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차세대 자율주행 안전성 향상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할해 글로벌 자율주행 밸류체인 핵심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H오토아이는 여러 자율주행 국책과제를 통해 딥러닝 기반의 다양한 인식 객체 검출 시스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굴지의 완성차 제조 기업에 자율주행 센서 제품 공급을 추진 중이다.

한편, DH오토아이의 모기업 DH오토웨어는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공장에서 자율주행 관련 주요부품 양산을 시작,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신보, '따숨희망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75억 규모...사회적 약자 우대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하나은행과 함께 '따숨희망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총 5억원의 특별출연금을 통해 총 7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보증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 대상 대폭적인 우대 방향으로 기획됐다.

지원 금액 최대 5000만원, 상환 방식 최대 7년으로 이번 보증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보증금액 우대, 보증료율 인하로 일반 보증에 비해 실질적인 금융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특례보증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gj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규승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자립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포용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나다운 기자**

재테크 칼럼

탐욕·단타·빚투...실패 부르는 투자

주변을 돌아보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자는 많은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유가 뭘까. 재미 투자자가 승자가 되지 못하는 몇 가지 습관이 있다. 흔히 주변에서 듣는 푸념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서 마치 누군가가 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재미 투자자들은 다수가 매수, 매도 타이밍을 거꾸로 잡는다. 공포와 탐욕 때문이

다. 투자의 대원칙은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파는 것이다. 시장이 타오를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시장에 찬바람이 불 때는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다.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파는 원칙만 지킬 수 있어도 투자는 절반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자신이 실패한 다수에 포함되는 투자자라고 생각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투자방식을 거꾸로 가져가 보자. 사

고 싶을 때 팔고 팔고 싶을 때 사는 것이 다.

다음으로는 단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단타는 증권사나 거래소만 살찌울 뿐이다. 앙드레 코스톨리니를 비롯한 투자의 거장들은 단타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카지노를 가라고 조언한다. 단타를 실행해서 몇 번의 성공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함정이다. 그맛을 잊지 못하고 단타를 반복하는 사이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미 투자자의 계좌는 녹아내린다. 개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미 투자자가 단타를 선호하는 것은 조금증 때문이다. 조금증을 느긋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위대한 승자의 길로 다가설 수 있다. 10년 전에 미국 증시의 우량주나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했다면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성장성이나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의 주식을 마냥 장기 보유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은 늘 투자자의 편

이다. 대공황을 비롯한 어떤 불황도 시장은 항상 극복하고 우상향 해왔다. 우량주, 성장주를 긴 시간 동반자로 보유한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가능하면 빚 투자도 피해야 한다. 성장주를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다면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의 역량이 되는지를 스스로 잘 살펴야 한다. 빚 투자는 투자자의 심리를 어지럽혀 조금증을 불러내고, 투자의 원칙들을 깨트리는 원인이 되어 실패를 몰아온다. 위의 간단한 투자 원칙들만 지켜도 소수만이 누리는 승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